

# 명량 유물로 만나는 격동의 역사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달 1~2월 14일 특별전 '명량'



'청자 기린 모양 향로'



'소소승자총통'



1591년 선조가 충무공 이순신에게 내린 전라좌수사 임명장 '사부유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커먼 물 속. 라이트를 쬐도 빨과 부유물이 앞을 가려 눈 앞에 있는 손도 보이지 않는다. 시각보다는 촉각에 의지하며 바다 바닥에서 무언가를 집는다. 거센 물살과 맞서며 어렵게 건진 물건이 청자와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자 잠수부들은 환호성을 지른다.

**명량해협 수중 발굴 성과 첫 전시**  
**유물 250점·역사자료 50점 선봬**  
**고려 삼별초 항거의 역사도 조명**

지난 2013년 취재차 방문한 진도군 고군면 오우리 '2차 수중 발굴 조사' 현장의 모습이다. 수중 발굴선 누리안호(290t) 갑판 위에는 잠수를 마친 잠수부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유물을 확인하고 있었다. 빨이 묻어 돌인지 유물인지 분간이 안되는 탓에 무조건 건지고 나서 물에 씻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다.

하루 9시간 넘게 수심 20m의 바닥을 기어다니며 건진 물체들은 대부분 유물이 아니었지만 잠수부들은 기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산소통을 뱉었다.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구)가 12월 1일부터 2016년 2월 14일까지 특별전 '명량(鳴梁)'을 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진도 명량대첩로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성과를 선보이는 첫 전시다. 진도 울돌목은 고려시대 강진에서 제작된 고려청자를 개경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벧길이라는 점에서 태안 마도 앞바다에 비견되는 '보물창고'로 지목됐다. 당시 발굴조사 결과 삼국 시대 토기부터 고려, 조선, 근대, 중국 도자기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예상치 못했던 조선시대 유물이 처음 발견되며 학계를 흥분시켰다.

전시는 크게 4부로 나뉜다. 명량대첩로 주요 유물 250여 점을 비롯해 보물 4점을 포함한 역사적 자료 50점 등 총 300여 점을 선보인다.

제1부 '기적의 바다, 명량'에서는 진도 명량과 여천 해저에서 나온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 조선 시대 주요 화포인 '중완구(中碗口, 보물 제858호), 1591년 선조가 충무공 이순신에게 내린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 임명장 '사부유서(賜符諭書, 보물 제1564-6호)', 1597년 선조가 파직된 충무공에게 다시 내린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임명장 '기복수직교서(起復授職敕, 보물 제1564-3호)' 등이다.

이번 발굴의 최대 성과는 명량대첩 당시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소승자총통'이다. 그동안 기록이 없어서 최초로 존재가 확인된 경우다. 몸통에 만든 시기(1588년), 장소(전라좌수영), 무게(세근 아홉냥), 제작자(장운영) 등이 적혀 있어 중요 역사자료로 꼽힌다.

제2부 '혈로의 역사, 명량해협'은 명량의 해양지리적 환경과 해난사고 흔적들을 소개하고 제3부 '성난 파도 속에서 피어난 꽃, 도자기'는 바닷길 물류 유통을 살펴본다. 명량에서 발견된 '청자 오리모양 향로', '청자 투각 당초무늬 붓꽃이' 등 최고급 청자부터 소박한 생활도자기 등이 출품됐다.

현대인이 보기에도 깜짝하고 세련된 모양의 '청자 기린 모양 향로'는 독특한 형태와 확실한 출토지인 진도진귀한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인 제4부 '또 하나의 기억, 고려 삼별초'는 13세기 고려의 삼별초가 진도 명량 해역에 고려왕궁 '용장성'을 건설하고 몽골 침략에 항거했던 격동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다.

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옛부터 조류가 강한 혈로임에도 불구하고 해상 지름길이었던 탓에 많은 선박이 오갔던 '명량'은 다양한 수중문화재가 잠들어 있는 곳이다"며 "내년부터 옛 침몰선과 문화재들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061-270-204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8~29일 조대극회 110회 공연 '오장군의 발톱' 연습 모습. 원내는 조대극회 출신으로 이번 공연에 출연하는 탤런트 이한위.

## 68년 역사 조대극회 '오장군의 발톱' 공연 박윤모 지도교수 헌정...선후배 한무대 선다

28·29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1948년 9월 광주 동방극장에서 함세덕 작 '무의도 기행'을 창단 작품으로 올린 조대극예술연구회(이하 조대극회)는 연극 불모지 광주에 '씨'를 뿌렸다. 지난 2010년 대한국회 사상 최초로 100회 공연을 가진 조대극회는 꾸준히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8일(오후 7시), 29일(오후 4시) 두차례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110회 무대는 조금 특별한 공연이다.

조대극회 출신으로, 지난 2001년부터 지도교수를 맡아 학생들과 부대끼며 작품을 만들어온 박윤모(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씨가 지도교수에서 물러나는 것에 맞춰 기획된 헌정 공연이다. 조대극회는 지난 2001년 조대극회의 산증인인 고(故)조우현 지도교수 정년퇴임 헌정 공연 '한여름밤의 꿈'을 무대에 올린 적이 있다.

이번 무대는 현 조대극회 멤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조대극회를 거쳐 간 선배들의 합동 공연이다. TV와 영화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탤런트 이한위를 비롯해 74학번인 김성수·조영철씨, 79학번 박영국씨 등 나이 지긋한 선배들과 김현승·전인경·이주연 씨 등 젊은 후배들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박윤모 예술감독도 카메라 출연한다.

연출은 역시 조대극회 출신인 김지훈씨가 맡았으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들의 연습은 국립극단 상임연출 신용수(83)씨가 진행했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오장군의 발톱'은 우화 형식을 빌어 전쟁의 비인간성과 폭력성을 고발하는 작품이다. 1974년 발표된 박조영의 희곡으로 1975년 공연불가 판정에 따라 13년간 빛을 보지 못하다 1988년에 극단 미추에 의해 초연됐고, 백상예술대상 희곡상을 수상했다. 문의 010-3114-96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전남도립국악단 창극 '놀보가 기가 막혀' 공연



내일까지 남도소리유폴터 공연장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이 26~28일 남양 신도시에 자리한 남도소리유폴터 공연장에서 신관 창극 '놀보가 기가 막혀'를 선보인다.

신관창극 '놀보가 기가 막혀'는 원작 창극 '놀보전'을 각색한 작품으로, 탐욕과 심술로 가득 찬 놀보, 그리고 선량하고 정직하고 우애와 신의를 지키는 흥보 이야기이다.

하였으며, 창극 '황진이', '속대머리' 등 다수 작품을 연출한 김중진씨가 맡았고 작곡은 유장영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이, 안무는 박현미 전남도립국악단 무용수석이 맡았다.

최상의 건축음향과 최신 설비를 갖춘 남도소리유폴터 공연장에서 현대적인 기법의 영상 등을 통해 화려한 무대를 연출할 계획이다.

티켓 가격은 일반 1만원, 단체·학생 7000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5000원 등이며 티켓링크(1588-7890)에서 예약 가능하다. 문의 061-285-6928. /김미은기자 mekim@

## 광주문예회관 임·단협 잠정합의...예술감독 선임 절차 변경

예술단 사무국 내년부터 설치 운영

광주문예예술회관은 25일 광주시립예술단 노조와 임금 협상 및 단체협상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또 예술감독 선임은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내년 임금협상 관련, 기본급 3.8%인상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수준을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7개 광역시 중 중상위권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예술감독 선임 절차도 바뀐다. 시와 단원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된 청빙위원회가 3명의 후보를 선정하면 단원, 전문가, 관객들이 참여하는 전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이 위촉하게 된다. 앞으로 예술감독 선임과 관련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며 오는 12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광주시립교향악단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문화예술회관 시스템도 대폭 개편한다. 문예회관 혁신 T/F팀에서 제시했던 예술단 사무국이 내년부터 설치 운영됨에 따라 회관 내 사무국 중심의 업무를 대폭 이관한다. 회관의 공연사업부는 업무 기능을 전환해 자체 기획공연 및 대관공연사업, 사업예술단

의 마케팅 사업 활성화, 해외 우수 초청공연, 시립예술단 공연예술의 경쟁력 강화 등에 나서게 된다.

또 회관은 시립예술단의 정기 및 수시 공연에 대하여 다양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시법적으로 6회에 걸쳐 시립예술단의 공연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진행, 결과를 각 단계에 통보했으며 내년부터는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그밖에 공연장 건축 음향 건설 및 설계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추경에서 시설비를 확보해 음향 시설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